

최태원 SK 회장 코리아소사이어티 60

주년 행사 참석

2017/09/29

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조지 W. 부시 前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자리에 섰습니다.



최태원 회장은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 이어, 부시 前 대통령은 아버지인 조지 H. W.

부시 前 대통령에 이어 2 대에 걸쳐 한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'밴 플리트상(Van Fleet award)'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. 2 대에 걸쳐 부자(父子)가 밴 플리트상을 수상한 것은 최 회장과 부시 前 대통령이 처음인데요.

최 회장은 9 월 28 일(이하 현지시각)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60 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, 부시 前 대통령과 만나 한미 양국간 민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과 부시 前 대통령 외에도 한미 양국의 정계, 재계, 학계 등 인사 440 여명이 참석했습니다.

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, "선친의 유지인 장학사업과 학술교류로 한미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, 선친에 이어 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밴 플리트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다"고 말했는데요. 최 회장은 이어 "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43 년 동안 한국 최고의 인재들을 지원해 700 여명이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"면서 "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사업과 학술교류로 한미 양국 발전과 가치 공유에 기여하게 돼 긍지를 느낀다"고 말했습니다.

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출신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염재호 고려대 총장, 김용학 연세대 총장, 천명우 예일대 학장 등이 최 회장과 함께 참석해 미국측 인사들과 양국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요.

최 회장은 또 "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, 이 때문에 북핵 사태라는 위협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미 동행은 굳건하다"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

밴 플리트상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전쟁 당시 미 8 군 사령관을 지낸 고(故)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인데요. 최종현 선대회장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,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사후(死後)인 1998 년 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.